

해양부, 사이버 독도해양청 5월중 개청

오는 7월 초 출범식을 겸한 직원 워크숍

청장 등 공모, 국민참여형 사이버행정청

해양수산부는 5월 하순 국민참여형 사이버 독도 해양청(Cyber Dokdo Ocean Agency: 이하 사이버독도청)을 개청키로 하고 정책홍보관리실장을 설립추진단장으로 하는 설립작업에 착수했다.

해양부는 사이버 독도청을 통해 기존 홈페이지들이 갖고 있는 정보의 질적·양적 한계를 극복하고 관련 사이트와의 연계를 통해 독도 관련 각종 정보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 잘못된 독도정보 바르게 고치기와 독도관련 정책수립에의 참여를 유도, 정부와 국민간 쌍방향의 사소통을 실현하게 돼 정부와 국민간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자료를 수준별로 제공하는 '독도스쿨'은 학생들의 학습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뿐아니라 일반인들의 독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독도경비대에 보내는 위문편지 이메일링 서비스는 국토방위에 매진하는 독도경비대원들에게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잘못된 독도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독도 옴부즈만 시스템과 홍보시스템을 연계해 사이버공간에서의 상시적 대응체제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독도 영유권문제에 대한 세계인들의 오해를 조기에 불식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국민참여형 사이버행정청으로 출범하게 될 사이버독도청은 청장 이하 3본부(행정지원·정책홍보·지속가능이용)·6팀(총무·법률·정책홍보·

국제홍보·해양환경·해양자원)으로 구성된다. 또 자문단으로 바른역사자문단을 설치할 예정이며 일반 국민공모를 통해 청장과 팀장·팀원을 충원해 국민참여형 사이버행정청으로 기능할 계획이다.

국민공모를 통해 뽑힌 팀원들은 독도의 지속가능이용에 관한 기본계획 등 각종 독도관련 계획 수립에 자문역할과 정책제안을 담당하게 돼 정부와 민간이 상호 시각차를 이해하고 조정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장공모는 9일부터 해양부 홈페이지를 통해 자천 또는 추천 형식으로 접수한다. 이어 이달 하순 개청과 함께 직원공모에 착수해 6월중 조직과 구성원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 7월초 출범식을 겸한 직원워크숍을 통해 향후 운영방향을 확정짓게 된다. 사이버 독도청은 올 하반기 업그레이드 작업과 함께 영어·일어 등 주요 외국어 홈페이지도 오픈한다.

